

# Focus

## '21년 2분기 6대 전략광물 시장전망

\* 본 자료는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요 약

- ▶ 작년 1분기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금년 광물자원 시장은 기저효과가 크게 발생하였고, 미·중 대국경제의 경기부양책과 미달러약세 효과로 동과 철광석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강세가 나타남
- ▶ 향후 미달러약세, 중국의 경기개선 및 그린뉴딜 등 신규 산업수요가 핵심광물 자원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으로 양적완화 조기축소 가능성 및 광종별 수급편더멘탈적 요소가 미래가격을 좌우할 전망이다
- 동은 미달러약세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 선호, 글로벌 경기회복 및 그린에너지 인프라 확대전망에 힘입어 상승압력이 발생함. 또한 칠레,의 코로나 재확산과 세계1위 광산의 노조파업으로 공급충격이 발생하여 가격상승세가 예상된다. 다만, '22년 이후 Kamoakakula, Cobre Panama 등 대형광산의 공급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니켈은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스테인리스 생산확대 및 전기차 배터리산업의 낙관적 전망에 힘입어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급측면에서 인니의 페로니켈 니켈선철 생산확대 및 필리핀의 신규 광산 개발 금지해제 전망 등으로 상승압력이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 아연은 미달러약세 및 중국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적 편더멘탈로 인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가격하락세 전망
- 철광석은 코로나 확산 이후 글로벌 철강산업 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브라질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공급충격으로 가격급등세가 나타남. 다만 '21년 이후에는 브라질과 호주의 팬데믹 완화에 따른 광산공급 재개 가능성 및 Vale사 등 메이저의 자원가 증산 전략으로 하방리스크가 발생할 전망이다
- 유연탄은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상승압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전환기조 및 중국의 호주탄 수입규제정책으로 하방압력에 직면할 전망이다
- 우라늄은 팬데믹 이후에도 공급과잉 과다재고 등 편더멘탈적 제약으로 가격이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 그린에너지 전환과 미달러약세에 따른 자원시장 강세화

금년 자원시장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양적 완화 지속에 따른 미달러약세로 위험자산 투자가 확대되면서 강세장 (bull-market)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다. 특히 4차산업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동조화되면서 기본원료인 광물자원 확보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인프라와 디지털 경제전환을 위한 2.5조 달러규모의 정책패키지를 경기부양의 핵심으로 설정했으며,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 경제를 목표로 4차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자원소비의 트렌드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의 경기상황이 코로나 백신보급 확대 및 작년의 기저효과 등으로 큰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수요측면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최근 6대 전략광물 가격추이>

구 분	'20.Q1	'20.Q2	'20.Q3	'20.Q4	'21.Q1	'21.5월 (전년대비)
동(달러/톤)	5,637	5,356	6,519	7,166	8,504	10,184 (94.6%)
니켈(달러/톤)	12,723	12,215	14,210	15,930	17,570	17,606 (45.1%)
아연(달러/톤)	2,128	1,961	2,335	2,628	2,750	2,970 (51.3%)
철광석(달러/톤)	90.21	92.63	117.86	133.19	166.96	207.23 (127.7%)
유연탄(달러/톤)	67.75	56.17	51.27	65.64	85.96	99.83 (82.1%)
우라늄(달러/파운드)	24.72	32.49	31.17	29.58	29.51	30.85 (-9.0%)

이러한 낙관적 기대속에서 자원가격은 2분기 들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타이트한 수급상황을 나타낸 철광석과 동 가격의 경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경기선행지표로 인식되는 동(Dr. Copper)은 톤당 1만달러를 돌파하였고, 산업의 쌀인 철광석도 톤당 200달러를 돌파하였다. 이같은 자원시장의 강세장을 확인한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들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도래”를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광물자원은 위험자산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자본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

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연준의 자산매입 속도조절(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하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와 광종별 수급 펀더멘털이 시장전망에 있어서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시장의 주요 변수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미달러가치는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미연준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QE) 정책이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미연준은 통화량을 급격하게 확대<sup>1)</sup>시켰으며, 이후 미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면서 원자재,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금년 5월 미달러인덱스는 90.30으로 전년동월대비 9.3% 하락하였고, 달러화가치는 작년 2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와같은 양적완화 정책은 1년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에 따라 위험자산의 하방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4월 인플레이션율이 4.2%를 기록하면서 '08년 9월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투자시장은 미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미국의 통화량(M2) 증가율 및 인플레이션<sup>2)</su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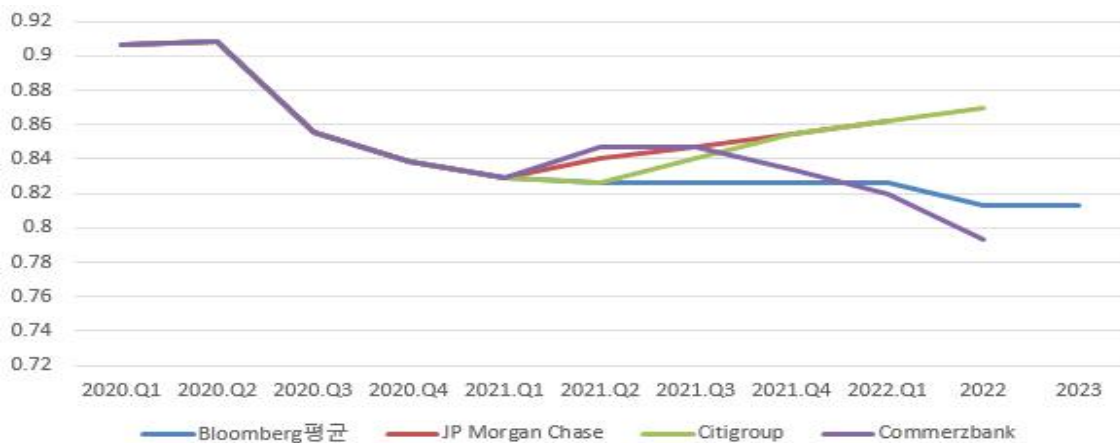


1) '20년 미국의 통화량(M2)은 3월 51.4%, 4월 111.5%, 5월 79.3%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이에따라 미달러가치는 크게 하락하며 위험자산 수요확대를 유발함

2) 자료원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통계정보

최근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금년 미달러가치 전망을 살펴보면, 다수의 해외 기관들이 미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을 '22년 2분기 또는 '23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유로화로 표시된 미달러화 가치도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어 위험 자산의 투자 선호는 상당기간 확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JP Morgan과 Citigroup 등은 금년 하반기부터 미달러가치의 반등을 전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면서 미연준의 자산매입 속도가 늦춰질 경우 자원시장의 하방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기관들의 미달러가치(유로화/달러화) 전망추이3)>



다음으로 자원 최대소비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측면을 살펴보면, 금년 1분기 중국의 GDP성장률은 18.3%(YOY)로 전기인 6.5% 대비 11.8%p 상승했으며 전년동기인 -6.8% 대비 25.1%p 상승하면서 '92년 집계이후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작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금년 1분기는 기저효과가 크게 발생했으며, 국내 및 세계 수요회복과 중국 정부의 확장적 경기부양 정책추진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Bloomberg통신에 따르면 금년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코로나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및 인프라 확대정책에 힘입어 8~9%대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며, 특히 Morgan Stanley사는 금년 9%, 내년 5.8%대의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다만, 2000년대 제조업/수출중심의 중국경제가 서비스/내수중심으로 성장동력이 전환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자원소비 유발효과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자료원 : Bloomberg통신 `21년 5월기준

## &lt;주요 기관들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4)&gt;

구 분	'21년	'22년	'23년
Bloomberg 평균치	8.6	5.6	5.5
Goldman Sachs Group	8.5	5.7	
JP Morgan Chase	9.0	5.6	-
Morgan Stanley	9.0	5.8	-
Moody's	8.0	5.6	5.8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위험자산인 자원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달러가치는 다수의 해외기관들이 미연준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이 금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치의 하락세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테이퍼링 조기추진 가능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위험자산의 투자수요를 부분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 한편 중국 경제는 작년 코로나 소비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및 인프라 확대정책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금년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어 자원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I 광종별 시장전망

(1) 동은 수요측면에서 코로나 백신보급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과 미달러 약세 효과로 위험자산 투자선호가 확대되는 가운데 4차산업 친환경에너지 전환기조로 신규수요 기대5)가 높아지면서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도 세계 광산생산 1위 국가인 칠레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 광업로열티 인상법안 하원통과, 세계 1위 광산인 Escondida, Spence광산의 노조파업으로 공급차질 이슈에 따른 가격상승압력이 심화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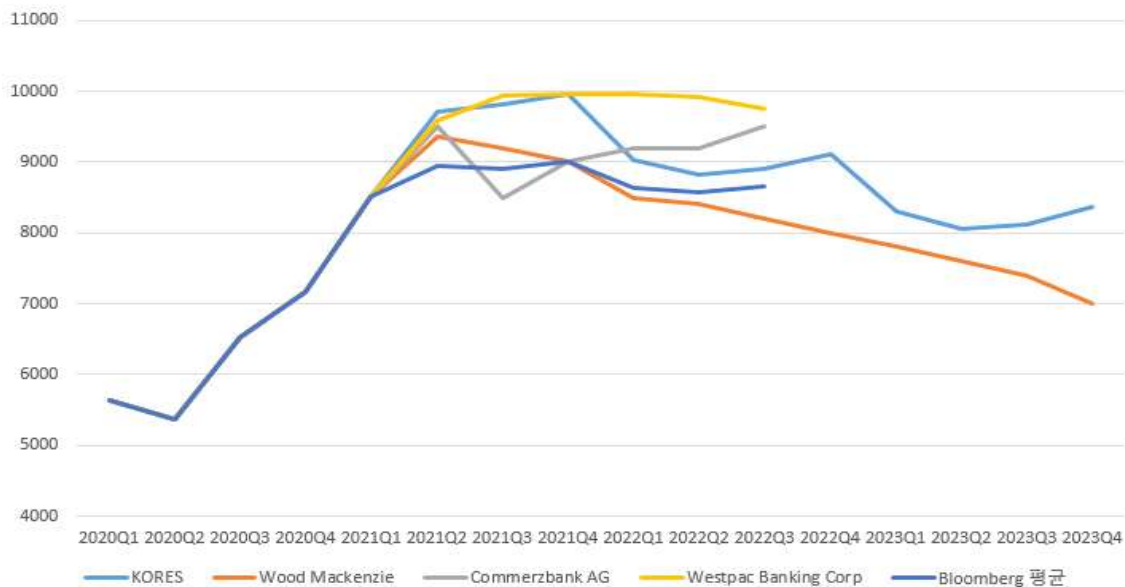
4) 자료원 : Bloomberg통신 `21년 5월기준

5) 미국 바이든 정부는 2.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 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연간 120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중장기 동 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있다. 최근 콩고민주공화국(DRC)도 동과 코발트의 정광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동 가격은 5월들어 톤당 10,7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고, 5월 평균가격은 톤당 10,184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4.6%의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등은 세계 경기회복과 그린에너지 수요확대로 동 시장의 슈퍼사이클 도래를 언급하는 등 동 시장의 강세를 예상하는 상황이다.

또한 Wood Mackenzie사에 따르면, 미국, 유럽, 중국 등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1년 전기동 소비는 24,113천톤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하고, 같은 기간 전기동 공급은 23,878천톤으로 전년대비 0.2% 증가에 그치면서 공급부족 235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광산 공급측면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칠레의 3월 동 생산량이 488,70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하면서 10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메이저 BHP사의 Escondida, Spence 광산 노조의 파업이 5월말부터 지속되면서 공급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First Quantum사의 주력광산인 파나마 Cobre Panama, 잠비아 Sentinel의 증산전망과 Ivanhoe Mines사의 콩고민주공화국 Kamoakakula의 생산개시에 힘입어 '21년 동 광산 생산량은 전년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별 전기동 가격전망 추이>





공사의 전기동 가격예측 모델은 중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미달러화 가치인 유로/달러 환율, 전기동 소비량 및 공급량 등이 포함되어 운용되고 있다. 주요 전망기관과의 비교분석 결과는 '21년까지는 미달러가치 하락세 및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분기평균 톤당 9천달러 후반선까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양적완화 조기축소 가능성과 코로나 변이 재확산 위험은 상기 가격상승압력을 부분적으로 상쇄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22년 이후 대형 노후광산들의 확장 프로젝트와 콩고민주공화국 Kamoakakula 등 신규 프로젝트 정상생산 진입효과로 수급측면에서 하방압력을 재차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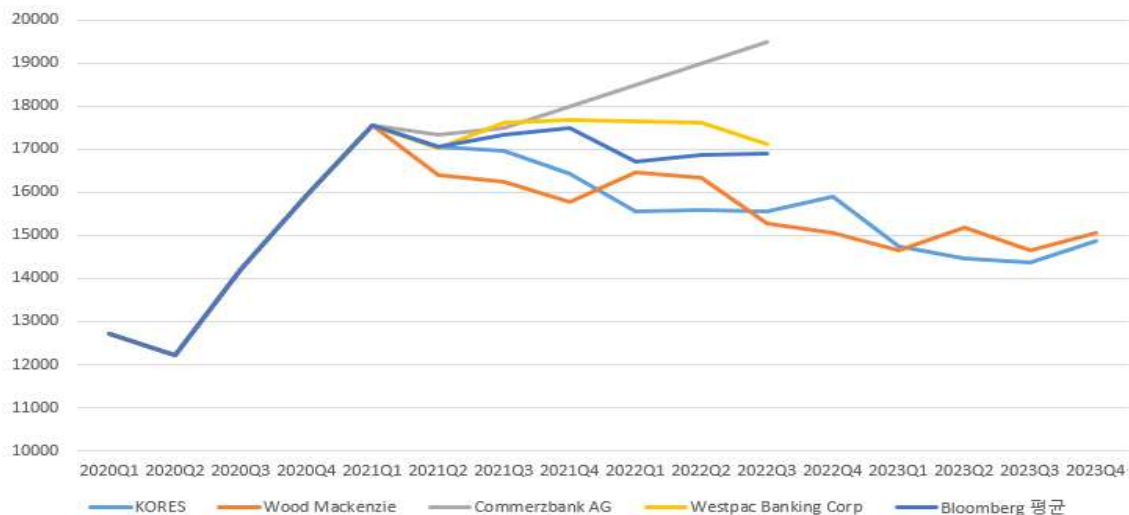
구분	KORES ( '21. 6. 2 )	Wood Mackenzie ( '21. 5월 )	Commerzbank AG ( '21. 5. 5 )	Westpac Banking Corp ( '21. 5. 10 )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 '21. 5. 28 )
2021Q1	8,504	8,504	8,504	8,504	8,504
2021Q2	9,717	9,350	9,500	9,584	8,951
2021Q3	9,807	9,200	8,500	9,933	8,909
2021Q4	9,958	9,000	9,000	9,967	9,003
2022Q1	9,033	8,500	9,200	9,958	8,640
2022Q2	8,818	8,400	9,200	9,917	8,576
2022Q3	8,913	8,200	9,500	9,748	8,648
2022Q4	9,110	8,000			
2023Q1	8,304	7,800			
2023Q2	8,050	7,600			
2023Q3	8,124	7,400			
2023Q4	8,366	7,000			

(2) 니켈의 경우 작년초 코로나 19확산의 소비충격으로 스테인리스 경기가 침체되면서 하방리스크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추진 및 저금리에 따른 미달러약세 효과로 위험자산 투자수요가 확대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20년 인니의 니켈원광 수출금지에 따른 중국 니켈선철(NPI)의 원재료 수급차질로 공급차질이 나타났으며,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및 스테인리스 산업경기가 회복되면서 니켈가격

은 금년 1분기 톤당 17,570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1% 상승했으며, 5월평균 니켈가격은 톤당 17,606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5.1%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S&P사에 따르면 금년 니켈시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2.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 정책 및 중국의 경기개선으로 스테인리스 소비가 크게 확대 되면서<sup>6)</sup> 작년 코로나 소비충격에 따른 공급과잉분을 크게 상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급측면에서 필리핀의 신규 프로젝트 개발금지 해제 소식과 중국, 인도네시아의 니켈선철(NPI), 페로니켈 증산 및 중국 Tsingshan사의 인도네시아 니켈메트 생산에 따른 공급확대 요인도 가격하방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따라 '21년 니켈소비는 262만톤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니켈공급은 271만톤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하면서 공급과잉분이 작년 12.9만톤에서 9.5만톤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주요 기관별 니켈 가격전망 추이>



따라서 니켈가격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스테인리스 및 전기차 산업의 성장세 및 미달러약세로 가격상승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미연준의 테이퍼링 조기추진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위험자산의 투자수요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련니켈 시장의 공급과잉적 펀더멘털과 인도네시아의 정련니켈 생산량 확대로 상기 가격상승압력은 제약받을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니켈가격은 금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6) S&P사는 작년 세계 스테인리스 생산량이 5,089만톤으로 코로나 확산여파로 전년대비 2.5%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에는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확대정책 및 글로벌 경기회복 효과로 전년대비 9% 증가한 5,547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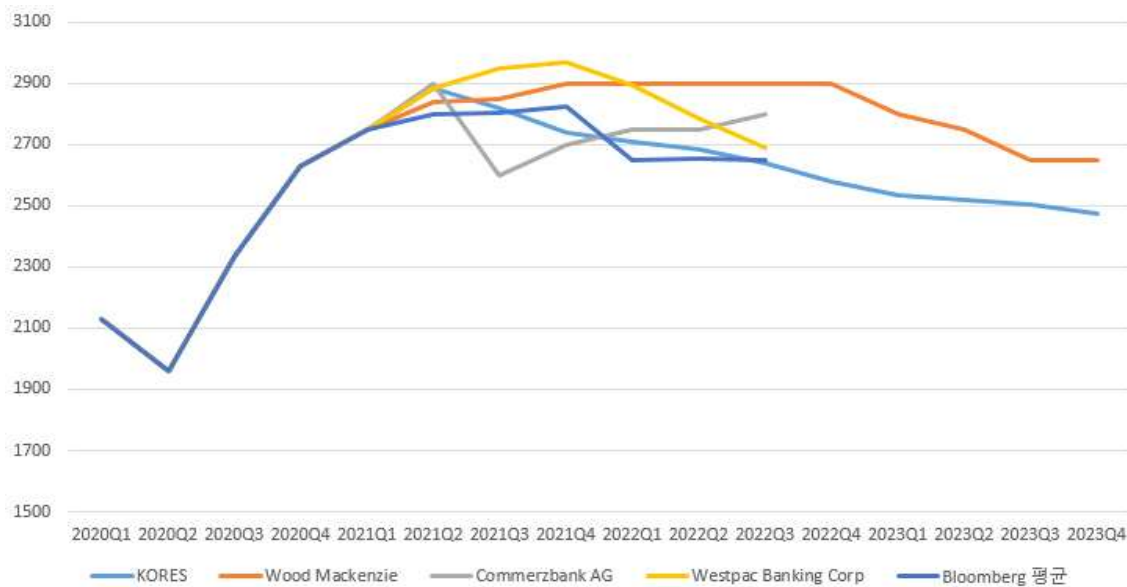
구분	KORES ('21. 6. 2)	Wood Mackenzie ('21. 5월)	Commerzbank AG ('21. 5. 5)	Westpac Banking Corp ('21. 5. 10)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1. 5. 17)
2021Q1	17,570	17,570	17,570	17,570	17,570
2021Q2	17,057	16,390	17,350	17,013	17,052
2021Q3	16,948	16,241	17,500	17,633	17,347
2021Q4	16,435	15,763	18,000	17,667	17,490
2022Q1	15,557	16,461	18,500	17,658	16,724
2022Q2	15,588	16,351	19,000	17,617	16,855
2022Q3	15,545	15,285	19,500	17,131	16,895
2022Q4	15,898	15,065			
2023Q1	14,753	14,661			
2023Q2	14,455	15,175			
2023Q3	14,373	14,661			
2023Q4	14,876	15,065			

(3) 아연의 경우 작년초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소비충격으로 하방 리스크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주요국의 경기부양책과 양적완화 정책추진으로 미달러가치가 하락하면서 아연가격은 상승세로 추세를 전환하였다. 다만, 아연시장의 공급과잉적 펀더멘털과 미국의 테이퍼링 조기추진 우려가 심화되면서 가격상승압력은 타광종 대비 상당부분 제약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금년 1분기 평균 아연가격은 톤당 2,750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2% 상승했으며, 5월 평균가격은 톤당 2,970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1.3%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Wood Mackenzie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소비충격 여파로 '20년 정련아연의 소비량은 13,228천톤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하였고, 같은기간 정련아연의 공급량은 13,731천톤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면서 공급과잉(503천톤)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확대 정책 및 미연준의 양적완화 지속에 따른 미달러약세에 힘입어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련아연의 소비량이 13,755천톤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었으며, 정련아연 공급량은 전년대비 1.5% 증가에 그친 13,938천톤을 기록하면서 공급과잉(183천톤)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에따라 향후 정련아연 가격은 중국의 경기개선 및 미달러화 약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적 펀더멘털과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축소 우려심화로 하방압력이 발생하면서 '22년에는 톤당 2,000달러 중후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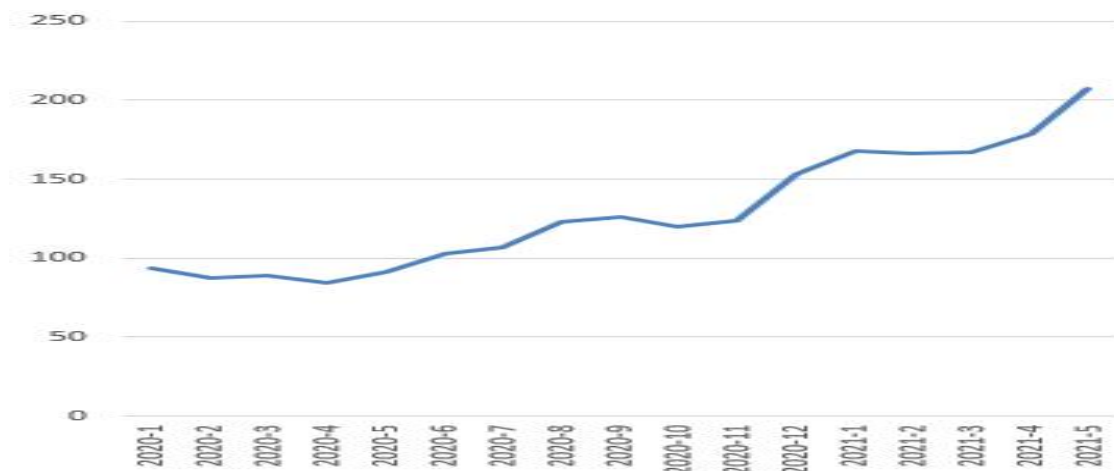
<주요 기관별 아연 가격전망 추이>



구분	KORES ('21. 6. 2)	Wood Mackenzie ('21. 5월)	Commerzbank AG ('21. 5. 5)	Westpac Banking Corp ('21. 5. 10)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1. 5. 17)
2021Q1	2,750	2,750	2,750	2,750	2,750
2021Q2	2,886	2,839	2,900	2,884	2,801
2021Q3	2,818	2,850	2,600	2,947	2,804
2021Q4	2,739	2,900	2,700	2,967	2,824
2022Q1	2,711	2,900	2,750	2,892	2,648
2022Q2	2,683	2,900	2,750	2,783	2,652
2022Q3	2,637	2,900	2,800	2,688	2,649
2022Q4	2,581	2,900			
2023Q1	2,533	2,800			
2023Q2	2,520	2,750			
2023Q3	2,502	2,650			
2023Q4	2,476	2,650			

(4) **철광석**은 금년들어 6대 전략광물 중에서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광종으로 5월중 톤당 23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시장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환경규제에 따른 철강 생산능력 제한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요측면에서 코로나 백신보급 확대에 따른 글로벌 철강산업 경기회복과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확대정책이 상승압력을 발생시킨 가운데 공급측면에서 메이저의 생산차질<sup>8)</sup>로 인해 공급충격까지 합쳐지면서 가격급등세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금년 4월 세계 조강생산량은 1억6,950만톤으로 전년동월대비 23.3% 급증하였는데 중국이 9,750만톤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했으며, 인도의 생산량이 830만톤으로 전년대비 152%나 급증하면서 조강생산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금년 1분기 철광석 평균가격은 톤당 166.96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5% 상승하였고, 5월 평균가격은 톤당 207.23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27.7%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철광석 월간가격(달러/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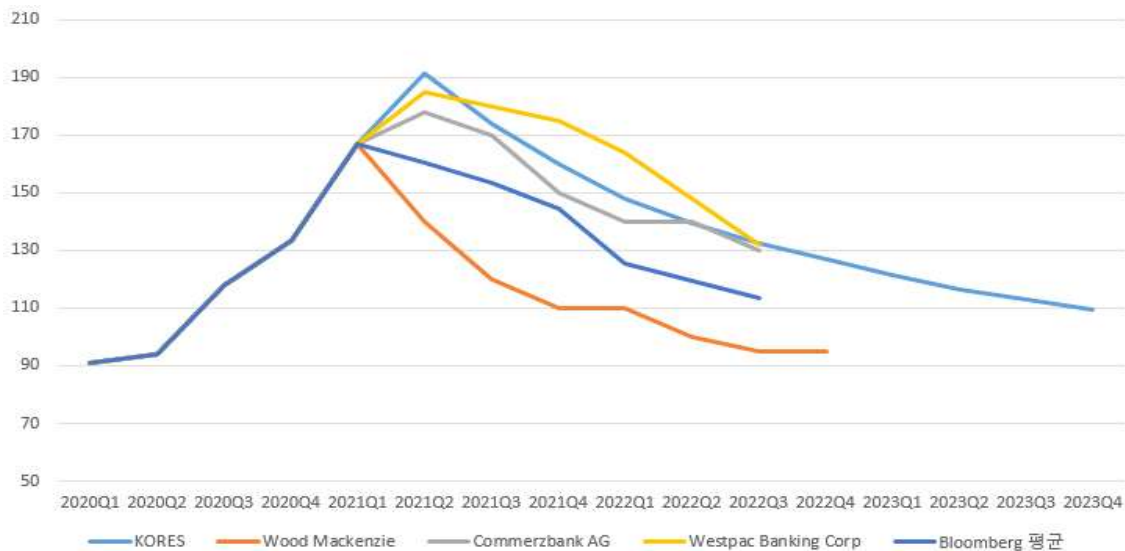
향후 철광석 시장은 수요측면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철강수요 확대 및 미달러약세 효과로 가격상승요인이 내재중이나,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 리스크와 중국 정부의 철강 생산능력 제한정책을 감안하면 가격상승세가 상당부분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호주와 브라질의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될 경우 기존 대형광산들의 정상생산 재개 및 철광석

7) 철광석 가격기준 : 62% 분광 중국 수입가(CFR) 기준

8) 브라질의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메이저 Vale사의 `21년 1분기 철광석 생산량은 6,805만톤으로 전기대비 1,646만톤이 감소하며 19.5%의 감소세를 나타냄

가격상승에 기반한 중국 중소형 광산들의 시장재진입 확대로 가격하방요인이 우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메이저 Vale, Rio Tinto, BHP사 등 메이저의 대형 철광산을 중심으로 한 규모의 경제 활용으로 중장기적 하방압력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철광석 가격은 '22년 이후 톤당 100달러 중반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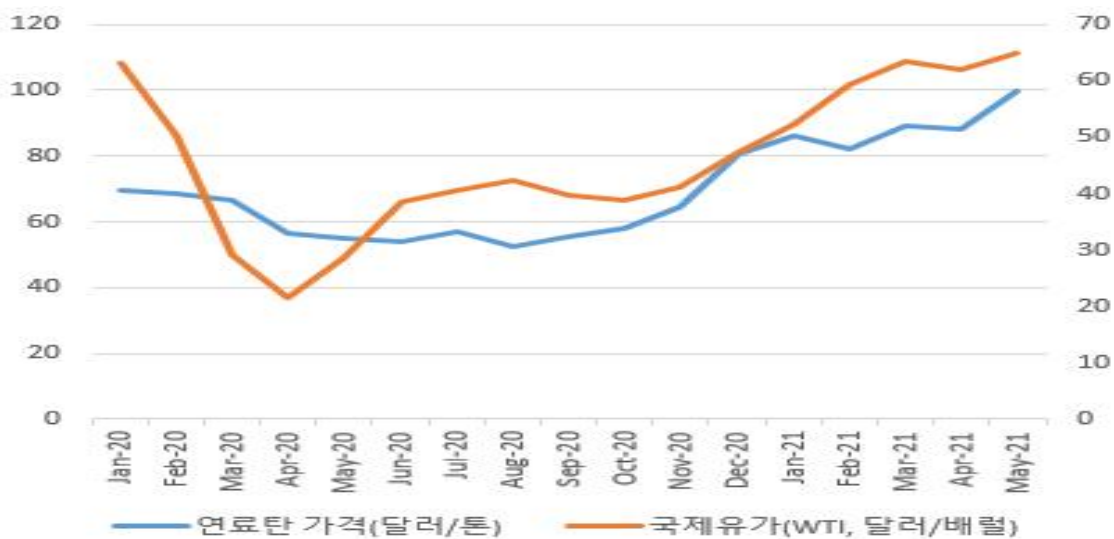
<주요 기관별 철광석 가격전망 추이>



구분	KORES ('21. 6. 2)	Wood Mackenzie ('21. 5월)	Commerzbank AG ('21. 5. 5)	Westpac Banking Corp ('21. 5. 10)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1. 5. 28)
2021Q1	166.96	166.96	166.96	166.96	166.96
2021Q2	191.27	140.00	178.00	185.00	160.50
2021Q3	173.78	120.00	170.00	180.00	153.30
2021Q4	160.00	110.00	150.00	175.00	144.60
2022Q1	147.91	110.00	140.00	164.00	125.33
2022Q2	139.47	100.00	140.00	148.00	119.33
2022Q3	132.59	95.00	130.00	132.00	113.33
2022Q4	126.93	95.00			
2023Q1	121.33				
2023Q2	116.70				
2023Q3	112.85				
2023Q4	109.64				

(5) 에너지원 중 하나인 유연탄<sup>9)</sup>은 작년초 팬데믹으로 주요국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발전수요 둔화와 국제유가 폭락으로 하방리스크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이후 백신보급 확대에 따른 세계 경기회복으로 기저효과가 크게 발생하면서 작년 4분기부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최근 10년내 최악의 황사문제로 노후 석탄광들의 공급제한 규제를 추진하면서 중국내 석탄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에너지원의 가격상승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1년 1분기 연료탄의 평균가격은 톤당 85.96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9% 상승했으며, 5월 평균가격은 톤당 99.83달러로 전년동월대비 82.1%의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연료탄과 국제원유(WTI) 월간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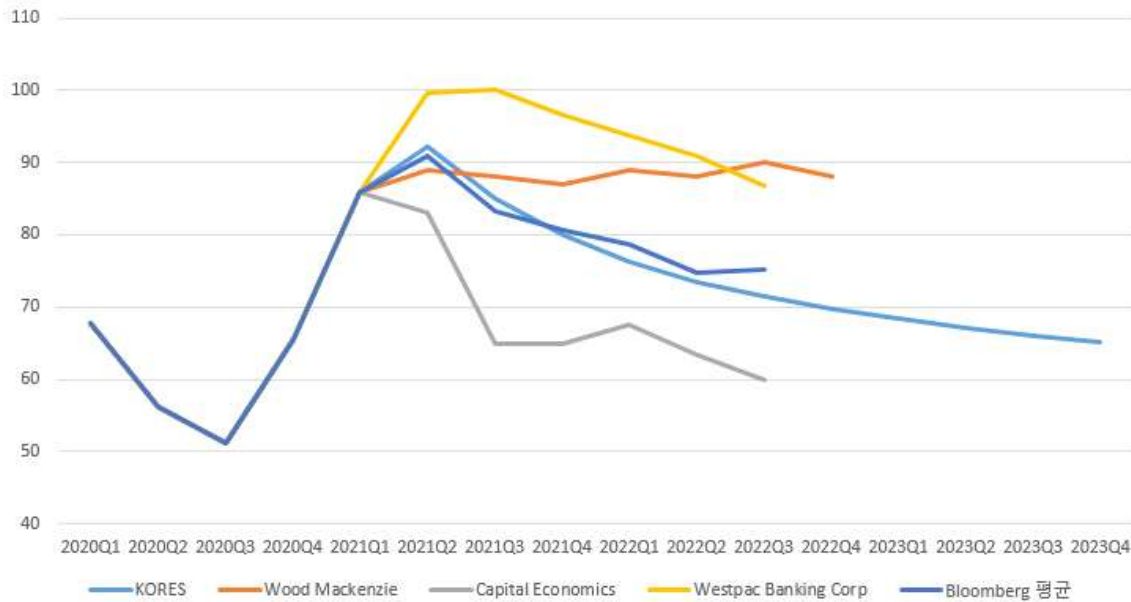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확대되고 화력발전 비중은 축소될 전망이어서 연료탄 수요가 하방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21년 석탄 소비비중을 총 에너지믹스에서 56% 미만으로 감축하는 대신 풍력, 수력, 태양광, 원자력 등 비화석 에너지원의 소비비중을 늘릴 계획을 발표<sup>10)</sup>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원 전환기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Morgan Stanley사는 미국이 '33년에는 석탄발전이 퇴출될 것으로 전망

9) 가격기준 : Intercontinental Exchange(ICE) 호주 뉴캐슬산 기준(globalCOAL NEWC Index)

10) 자료원 : 한국광물자원공사 월간자원 인사이트 5월호 "유연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료탄 가격은 금년 하반기부터 톤당 80달러선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국제유가 변동과 팬데믹 양상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별 유연탄<sup>11)</sup> 가격전망 추이>



구분	KORES ('21. 6. 2)	Wood Mackenzie ('21. 5월)	Capital Economics ('21. 5. 4)	Westpac Banking ('21. 5. 10)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1. 5. 17)
2021Q1	85.96	85.96	85.96	85.96	85.96
2021Q2	92.33	89.00	83.12	99.60	90.91
2021Q3	85.13	88.00	65.00	100.00	83.33
2021Q4	80.03	87.00	65.00	96.70	80.57
2022Q1	76.33	89.00	67.50	93.70	78.73
2022Q2	73.46	88.00	63.50	91.00	74.83
2022Q3	71.44	90.00	60.00	86.70	75.23
2022Q4	69.78	88.00			
2023Q1	68.32				
2023Q2	67.08				
2023Q3	66.02				
2023Q4	65.07				

11) 기준/단위 : 호주 뉴캐슬산 6,300kcal/kg, FOB기준 / 달러/톤



(6) **우라늄의 경우** '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공급과잉 및 과다재고의 펀더멘털에 기반한 하방압력이 지배적이었으나, 작년 3월 이후 팬데믹으로 메이저 Cameco사의 세계 1위 광산인 Cigar Lake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광산생산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상승압력이 발생하면서 우라늄 가격은 타광종과는 다르게 박스권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금년 들어서는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나, 팬데믹 완화로 광산생산도 확대되면서 파운드당 20~30달러선의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년 1분기 우라늄 평균가격은 파운드당 29.51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4% 상승했으나, Cigar Lake광산의 가동재개 등 광산공급의 정상화 등으로 하방압력이 발생하면서 5월 평균가격은 파운드당 30.85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우라늄 가격은 1분기 전망과 유사하게 일본의 원전재가동 정책부진과 미국, 유럽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전망에 따라 수요측면의 하방리스크 우세로 시장의 과다재고는 상당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라늄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파운드당 30달러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라늄 가격전망(달러/파운드) 추이>

